1998년도 학술답사 보고서

1. 답사개요

1) 기간

1998년 5월 6일 - 5월 8일(2박 3일)

2) 지역

경상북도 영주시, 안동시, 예천군 일대, 강원도 정선군 일대

3) 목적

- 안동문화권의 문화 유산 및 강원도 정선 일대의 문학적 배경 공간 답사
- 국어국문학과 전체 답사를 통한 연대감의 형성

4) 참가인원

지도교수 : 고영근, 이상택, 서대석, 송기중, 이병근, 조남현, 권두환, 송철의, 박희병

인솔조교 : 김동준, 김석봉, 이혁화, 천정환

1조 : 강삼희, 우치야마, 장유정, 김의진, 이영아, 이은주, 강국주, 서우종, 김은아

2조 : 유필재, 스즈키 준, 민성삼, 윤지영, 장수현, 김하라, 박경남

3조 : 류준경, 하시모토 지호, 류하영, 이경재, 노경희, 송민호, 곽지윤, 권정은

4조 : 김준범, 노수영, 오창남, 배주영, 서승완, 이선영

5조 : 송원용, 남수경, 칸 미쯔하루, 조성진, 엄윤주, 정길수, 한길연

6조 : 정진희, 류동현, 신서인, 박진우, 오민석

7조 : 임재욱, 조보라미, 이지영, 박이정, 이광호, 김태일, 진우침

8조 : 신중진, 이호승, 이경하, 송재연, 이안구, 세리까와

(이상 총 68명)

2. 답사 일정 및 활동내용

◉제 1일 : 서울대에서 출발. 부석사, 소수서원, 초간정, 예천 권문 종택을 방문한 후 예천 읍내 숙소에 도착.

5월 6일 9시 서울대에서 집결하여 첫번째 답사장소인 부석사(浮石寺)로 향했다. 부석사는 676년 의상이 창건한 절로서, 선묘 낭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설화를 간직하고 있다. 우리는 부석사에서 국보 17호인 무량수전(無量壽殿) 앞 석등(石燈), 국보 18호인 무량수전(無量壽殿), 국보 19호인 조사당(祖師堂), 국보 45호인 부석사 소조여래좌상(塑造如來坐像), 국보 46호인 부석사 조사당 벽화, 보물 255호인 부석사 당간지주(幢竿支柱), 보물 735호인 부석사 고려각판(高麗刻板), 경상북도유형문화재 127호인 부석사 원융국사비(圓融國師碑) 등의 숱한 문화유산을 직접 볼 수 있었다. 이 중 무량수전은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목조 불전양식으로서, 배흘림 기둥과 주심포 양식을 한 대표적인 고려시대 목조건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다음 답사지는 소수서원(紹修書院)이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은 1541년 풍기군수로 부임한 주세붕이 이듬해에 이곳 출신의 안향을 배향하기 위해 祠廟를 설립하였다가 1543년 유생교육을 겸비한 서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처음의 이름이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이었던 이 서원은 1550년에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는 사액을 받게 된다. 이곳에서 우리는 보물 717호인 주세붕 영정등의 문화재를 볼 수 있었고, 죽계천과 계곡 암벽에 새겨진 敬이라는 글자를 볼 수 있었다. 현대에 들어와 새롭게 지어진 충효교육관에서는 영주에 관한 영상물을 관람하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

다음으로는 초간정(草澗亭)과 예천 권씨 종택을 살펴 보았다. 초간정사는 권문해가 벼슬을 버리고 예천에 돌아와 심신수양을 위해 지은 정자인데, 여기에 박승임이 초간정사(草澗精舍)라는 이름을 붙여주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예천 권씨 종택에는 『大東韻府群玉』을 편찬하는 데 바탕이 된 稿本과 초판본의 판목이 보관되어 있었다. 『大東韻府群玉』은 권문해가 편찬한 일종의 백과사전이다. 임진왜란 이전의 일들을 방대하게 기록해 놓았기에 사료적 가치와 서지학적인 가치가 매우 높으며, 『殊異傳』 가운데 일부를 수록하고 있어 설화문학적인 면에서도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제 2일 : 안동 하회마을, 도산서원, 청량산, 태백산 정암사를 거쳐 가리왕산 휴양림 도착.

첫번째 답사지는 안동 하회마을이었다. 하회(河回)마을은 말 그대로 강물이 마을 주위를 둘러 흐르고 있었다. 풍산유씨의 집거지인 이곳은 현재도 사람이 사는 상태 그대로 조선 시대 가옥의 모습이 보존되어 있었다. 이 마을은 많은 인재를 배출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인물로 『懲毖錄』을 저술했으며 영

의정을 지낸 유성룡을 들 수 있다. 우리는 유성룡의 유품을 정리해 놓은 마을 안의 박물관에서 그의 체취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황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하여 건립된 도산서원(陶山書院)을 찾았다. 도산서원은 상덕사(尙德祠), 전교당(典敎堂), 한존재(閑存齋), 동재(東齋), 서재(西齋), 광명실(光明室), 장판각(藏板閣), 역락서재(亦樂書齋), 농운정사(隴雲精舍) 등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한켠에는 유물전시관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이황 선생의 저서를 비롯한 많은 유품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수차례의 보수를 통해 훼손되었다고는 하지만, 건물은 여전히 빼어난 곡선을 지니고 있었고, 낙동강의 유장한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좋은 전망도 지니고 있었다.

청량산에 들러 이황이 젊은 시절 공부했다는 오산당을 견학하려던 계획은 일정의 촉박함으로 이루지 못하고, 대신 청량산 입구에서 점심식사만을 했다. 그날의 숙소였던 가리왕산 산장에 가려던 길에 들른 태백산 정암사는 불상을 모시지 않은 적멸보궁의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우리는 사찰 안 시내에서 열목어를 살펴볼 수 있었다. 밤에 있었던 캠프 파이어는 학생들 상호간에,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 정을 확인할 수 있는 따뜻한 자리였다.

◉제 3일 : 소금강과 몰운대, 그 사이에 쌍약수와 화엄약수를 맛봄.

아침 식사를 마치고 이번 답사에 대한 간단한 평가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는 10여 년만에 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전공자들이 함께 떠난 답사였던 만큼 서로간에 친목을 다지는 데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평가가 끝난 후 우리는 버스로 소금강 일대를 살펴 보았다. 쌍약수와 화엄약수에 잠시 들러 쇠맛이 나는 약수를 맛본 후, 황동규의 시로 더욱 유명해진 몰운대에 올라 정선 일대의 산과 하천이 만들어내는 경치를 감상했다. 저녁 6시에 집결지였던 서울대에 도착한 후 해산했다.